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회귀의 서사 구조

마 희 정*

요 약

이 작품은 요선을 중심으로 종민이 심문하고 탐색하며, 관찰하고 추적하는 구조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회귀의 구조이다. 이 회귀의 서사는 주인공들이 '섬'을 중심으로 들고 나면서 격리, 입사, 귀환의 통과제의의 구조와 유사하다. 이것은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한 열린 구조로 귀결된다. 모호한 미래가 기다리고 인물들은 회귀의 서사 안에서 불투명한 인생의 굴레를 반복한다. 작중 인물들의 태생적 운명은 바뀌지 않으며 비극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숙명적인 운명의 굴레는 부모와 자식의 대립과 계승이라는 측면, 섬과 육지의 대립과 연계라는 측면, 개인과 국가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극적이다. 아기장수의 신화와 겹쳐 놓으며, 작가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과 한계를 그리고자 했다.

'곳'은 맺힌 한을 씻겨서 풀어주는데, 작가의 '글쓰기' 양식과 공통점을 지닌다. 글쓰기나 '곳'은 개인이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 묻어 두었던 시연이나 공권력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의 흔적을 들추어내는 증언의 역할과 의의가 있다. '곳'이라는 제의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화와 신비의 세계로써 시공을 초월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무하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과 은폐되는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려는 연행의 의미를 갖는다. 게다가 맺히고 쌓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문학적 장치로 작가는 '무속신화'의 '곳' 제의를 수용하여 소설과 함께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초빙교원

놓음으로써 소설의 양식을 확장하고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짓밟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반복된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은 세월이 흐를수록 울분과 원한으로 쌓인다. 위무의 글쓰기나 해원의 ‘굿’ 제의가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해주거나 영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고뇌와 방황, 그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글쓰기나 ‘굿’이 순간적인 것을 포착하고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닌 채, 진실은 계속 유예되고 있다. 그러나 망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은 진실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이며, 그들을 복원시켜서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무하는 일이며, 더 이상 비극적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일이다.

작가가 ‘굿’의 몸짓과 구전 언어를 작품 속에서 소설의 문자언어로 정확하게 옮겨 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글쓰기나 ‘굿’의 순간적 포착은 현현의 순간이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공감의 장이다. 따라서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이전 작품의 한계를 포괄하면서 초월하는 의의가 있다. 회귀의 서사는 ‘굿’ 제의와 맞물리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인 차원에서 신화적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굿’ 제의를 통해 고립과 상처의 공간에서 연대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자유롭지 못한 불안정한 연약한 인간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 작품을 통해 매개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작가의 치열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주제어: 회귀의 구조, 열린 구조, 운명의 굴레, 증언의 의의, 매개적 역할, 위무의 글쓰기, 해원의 굿

목차

1. 들어가며
2. 회귀의 서사
3. 욕망의 지연
4. 나오며

1. 들어가며

작가 이청준은 1990년대 이후, 소설 쓰기 작업이 동화쓰기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의 1960~1970년대 현실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탐색¹⁾이나 1980년대 인간 존재의 비극적 인식에 대한 천착²⁾이 한때 현실 세계가 아닌 이상 세계, 더 나아가서 상상 세계의 동화로 귀결되는 인상을 보인 것이다. 이청준의 동화는 〈서편제〉(1993)의 판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³⁾ 민속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신화적 세계로 밀접하게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으로 작가는 작고하기 전까지 낮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 작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 소설은 꿈(이념)과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와 그를 밀반침하는 역사적 정신태의 한계 안에 머물러온 느낌이었다. 그 현실과 역사의 유전적 침전물로서의 태생적 정서가 담겨 있을 낮(종교성과 맞먹을 우리 신화와 신화적 서사)의 차원이 결여되어 보인 것이다. 내 소설이 여태껏 긴 세월 어둠 속 길을 헤매온 것은 그렇듯 우리가 누구인지 본모습을 결정짓는 첫 번 요소라 할 우리 신화와 신화성에 소홀한 탓이 아니었던지 싶을 지경이다.⁴⁾

이전 작품의 한계에 대한 작가적 인식은 신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현실과 역사가 신화적 사고의 배제와 억압에서 벗어나서 상

1) 〈병신과 머저리〉(1967), 『별을 보여드립니다』(1971), 『소문의 벽』(1972), 『당신들의 천국』(1976), 〈잔인한 도시〉(1978) 등.

2) 『낮은 데로 임하소서』(1981), 〈시간의 문〉(1982), 『쏟아지지 않은 자서전』(1985), 『자유와 문』(1989) 등.

3) 『한국 전래 동화1, 2』(1997), 『수궁가』(2005) 등의 판소리 동화 참조.

4) 이청준,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 왔다』, 『신화의 시대』, 몰레, 2008, 313-314면.

생과 소통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든 근대적인 것을 초월해야 한다. 이청준의 후기 작품들이 신화와 신화성에 주목하는 이유일 것이다. 신화의 길은 인간 삶에서 빚어지는 단절과 상실감과 의심을 회복하여 치유와 화해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한 개인이나 사회 및 국가가 치유와 화해를 향해 가는 과정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죽음’과 ‘의사(擬似)죽음’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든 풀이와 셋김이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적 한의 세계와 승화를⁵⁾ 다룬 이청준의 작품에는 대표적으로 <서편제>(1993)⁶⁾, 『흰옷』(1994)⁷⁾ 등이 있다. 작가가 신화와 신화성을 의식한 이후의 작품에서 개인의 고통과 억압은 민족의 수난으로 확대되며, ‘소리’를 통해 치유되거나 승화되었던 것들이 ‘굿’제의로 확장된다. 본고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신화를 삼킨 섬』을 살피고자 한다.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작가·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제주민 의식이나 섬의 공간⁸⁾,

5) 일찍이 작가는 한의 쌓임과 풀림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소리의 흥과 신명기로 떠안으려 한 것부터가 저 가슴 아픈 삶의 정한덩어리였거니와, 더욱이 그 겨안음만으로는 아직 그 아픔의 덩어리가 다 삭아 내리지 못했음을, 그것은 저들의 뒷날의 행로 속에 두고두고 오랜 세월 삭여나기야 할 것임을, 거기다 저들의 내일의 행로위엔 보다 더 절망스런 위기가 닥쳐들 수도 있음을, 그대 저들의 내일 행로는 오늘보다 더욱 아프고 힘이 들 것임을. 저들도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 때문에 짐짓 더 호연스런 흥취를 과시해야 했음을.” (이청준, 『아픔 속에 숙성된 우리 정서의 미덕』, 『흰옷』, 열림원, 1994, 265-266면.)

6) 우찬제는 <서편제>의 한은 부정적/긍정적, 소극적/적극적, 상치/치유, 맷힘/풀림, 무의식/의식, 검은빛/흰빛, 복수/용서, 파괴/창조 등 수많은 대립 쌍을 가진 수레바퀴라고 한다. (우찬제, 『한의 역설』, 『서편제』, 열림원, 1998, 208면.)

7) 한의 본질은 흔히 말하듯 어떤 아픔이나 원망이 쌓여가고 풀리는 상대적 감정태로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꺼안고 초극해 넘어서는 창조적 생명력의 미학으로 읽고 싶은 것이다. (이청준, 『아픔 속에 숙성된 우리 정서의 미덕』, 『흰옷』, 열림원, 1994, 263면.)

8)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263-297면.

4·3 사건의 집단 학살을 서사적 기억으로 복원⁹⁾, 탈식민주의 시각을 통해 동일성의 논리를 상대화하는 것¹⁰⁾, 샤머니즘 및 신화적인 특성에¹¹⁾ 초점을 둔 글 등이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점이 섞여 있는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그 서사를 분석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본고는 『신화를 삼킨 섬』의 서사 분석을 통하여 이청준이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천착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에 다가가려고 한다.¹²⁾ 『신화를 삼킨 섬』을 분석하면서 집단 무의식의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제주민 의식』, 『우리어문연구』 53집, 2015, 117-151면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섬의 속성과 의미 고찰』, 『반교어문연구』 제40집, 2015, 117-151면.

- 9)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집, 2011, 281-305면.
- 10) 고인환,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29집, 2006, 109-130면.
- 11) 이경옥, 『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론』,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402-425면.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74, 2016, 225-253면.
- 12) 위의 글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한, 이청준의 신화 및 <신화를 삼킨 섬>과 관련된 대표적인 평론 및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김정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 『현대문학이론연구』, 2013, 31-48면.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최인훈,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49-369면.
오생근, 『이청준의 마지막 소설들과 신화』,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2011, 가을호, 257-270면.
우찬재, 『풀이의 황홀경과 다시 태어나는 낯』, 『신화를 삼킨 섬』 2, 열림원, 2003, 208-225면.
이재복, 『역사적 정신대를 넘어 낯으로-이청준의 <신화의 시대>에 부쳐』, 『신화의 시대』, 물레, 2008, 321-346면.
전홍남, 『원망의 좌절과 해원의 방식』,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97-121면.
정과리,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탑돌이도 넘어서』,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392-427면.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33-250면.

발현이나 인물의 억압과 증상을 다룬 글들을 보면,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전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면밀한 서사를 분석하여 순차적인 정리가 선행되어야 작가적 메시지에 근접할 수 있다.

작가 말년의 작품 중에서 『신화를 삼킨 섬』과 『신화의 시대』가 대표작이라고 볼 때, 『신화의 시대』가 미완의 작품인데¹³⁾ 비해 『신화를 삼킨 섬』은 완결되어 작가의 신화적 세계관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¹⁴⁾ 또한 이전의 〈서편제〉를 비롯한 『남도사람』 연작이나 『축제』 등에서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 또는 죽음과 희생제의의 모티브가 『신화를 삼킨 섬』에 반복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화를 삼킨 섬』은 국가적 폭력과 개인적 진실의 대립, 육지와 섬의 대립,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허구와 진실의 대립 등의 이청준 소설의 온갖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삼키고 지우고 초월한 자리에 놓여 있다. 총체적인 이청준 문학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삼킨 섬』을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신화를 삼킨 섬』을 통하여 이청준 문학이 개인과 사회와 역사의 불합리에서 시작하여 비로소 정신의 무의식과 원형적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청준 문학이 한국 문학에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분석을 통하여 우선, 고통스러운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신화적 요소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홍용기, 『사유와 실천의 윤리학』,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365-384면.

13) 이청준, 『신화의 시대』, 물레, 2008.는 미완의 장편 『신화의 시대』의 서장이다.

14) 『신화를 삼킨 섬』은 〈이어도〉, 『자유와 문』 등에서 이청준의 전작들이 미해결로 남겨두었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쏟아 놓은 작품이며(김정아, 앞의 글, 2013, 31-48면.) 『당신들의 천국』의 장소인 소록도가 재등장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다른 작품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때 영과 육의 경계를 지워버리고 영혼을 불러들여 접속하는 무속적 신화의 풀이 마당이 어떤 상징적 기호를 함의하고 있는지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상처받은 집단무의식이 어떻게 현재에서도 반복되면서 소환되어 치유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신화를 삼킨 섬』은 망각과 기억을 소설적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기억을 회고하는 것과 연관된 서사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추상적이며 관념적이라고 전해져 왔던 이청준 문학을 한 걸음 더 깊이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회귀의 서사

1) ‘아포리아’의¹⁵⁾ 열린 구조

『신화를 삼킨 섬』은 수많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엮어서 만든 장편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어떤 변화를 추동하는 핵심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이야기의 최소 단위인 의미 단락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인물과 인물의 행동을 핵심 주제와 행위 서술어로 정리한다면,¹⁶⁾ 핵심적인 주요한

15) ‘아포리아’(aporia)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난제를 의미하는 철학적 용어이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탐구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다시 발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필자가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16) ‘사건’과의 관계에서 ‘행위’와 ‘행위’와의 관계에서 ‘인물’의 분석은 ‘언술’ 층위보다는 ‘즐거리’의 층위에 가깝다. 전체 작품의 구조를 전체로 하여 소설문법의 최소단위를 ‘기능단위’라고 부를 때, 작품 요소를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작품 전체에 대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최현무, 『소설의 구조분석』,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1988, 234면.) 서술 문법의 단위에는 서술명제narrative

들을 포착하면서 작가의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사 과정을 따라간다면, 핵심 서사의 관계망들을 개괄적 이면서도 치밀하게 조망할 수 있으며 작가의 세계상이 서사 구조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 : 부부는 날개를 달고 태어난 아이를 용마바위 틈새에 숨겨 묻고 돌아온 후, 백 일 하루 전에 관가 군졸들과 아이 무덤을 찾아가다.¹⁷⁾

1.

① 정요선은 제주 추 심방을 방문하고, 서귀포 암무당 변 심방을 찾아보다.

② 정요선은 변 심방네에서 섬을 떠나고자 하는 금옥을 만나고 돌아오다.

③ 정요선은 제주도에서 소록도의 일을¹⁸⁾ 떠올리다.

2.

① 종민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목록을 들추며 곳을 마다 하는 섬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지다.

② 종민은 군부 정권의 ‘역사 씻기기’ 사업을 생각하며 냉소

proposition, 시퀀스sequence, 텍스트text가 있다.(츠베탕 토도로프, 광광수 역, 『구조시학』, 문학과 지성사, 1977, 96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독자는 서술명제와 시퀀스를 추출하는데 줄거리를 통해 패러프레이즈paraphrase와 요약summary이 가능하다. 서술명제는 이야기 속의 사건을 주어, 술어의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고, 서술명제가 모여 사건의 흐름인 시퀀스를 만들게 된다. 시퀀스들은 삽입, 연결, 교차의 조합방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한다. (츠베탕 토도로프, 위의 글, 103-105면.)

17) 아기장수 이야기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에게 날개가 달린 것을 알게 되어, 역적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죽여버리자 용마가 나와서 울다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용소 또는 말무덤이 생겼다.(우찬제, 『풀이의 황홀경과 다시 태어나는 녀』, 『신화를 삼킨 섬2』, 열림원, 2003, 211면.)

18) 소록도 음성 환자가 만령당 납골당에 간힌 동향의 죽은 남자의 소식을 전해 음, 어머니 유정남은 만령당의 혼백들과 죽은 고향사람의 혼백을 씻기고자 소록도 나환자 사자들의 안치소에 들러 요선에게 곡절을 털어놓음, 요선은 섬에 간힌 한 많은 죽음을 생각함(29-36면)

하다.

③ 종민은 용두리 해안의 진혼굿판에서 제주 곶에 대한 감동으로 새 곶판을 기다리다.

④ 종민은 육지부 무당의 곶을 기다리며 이 과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방문하라는 권유를 받다.

3.

① 만우는 고종민과의 통화로 정요선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다.

② 만우는 상처를 지닌 추심방이 자신의 앞날에 관대할수록 눈치를 보는 자신에게 화가 나다.

③ 만우는 고종민에게 한라산에서 유골 무더기가 발견되었다며 돌려보내지만 마음이 째째하다.

4.

① 요선은 변 심방네를 찾아가 금옥을 만나며 고종민과 만우를 의식하다.

② 요선은 섬 사람들의 외면에 놀라고, 조만신네의 두 토벌대 신원굿 사연을 듣다.

③ 요선은 고종민에게 한라산 혼백들에 대해 듣고, 금옥이에게 섬 탈출의 소망과 유골 발굴 사실과 섬사람들의 무관심 사연을 듣다.

5.

① 종민은 제주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무덤과 이름을 본 후, 아버지의 구사일생의 사연을 듣다.

② 종민은 이과장에게서 청죽회와 한얼회 간에 유골 쟁탈전 소식을 듣고 섬 체류를 지연시키다.

6.

① 요선은 예송리 새해 당제에서 본풀이 무가를 구경하면서 금옥의 운명을 보다.

② 요선은 종민에게서 제주, 전라도, 나라 전체의 억눌린 역사와 이용당하는 섬사람들의 운명을 듣다.

7.

① 종민은 아버지로부터 서신을 받고 곶 공부를 하고 돌아가겠다고 답장하다.

② 종민은 김통정 장군과 김방경 장군 설화의 대립 속에서 두 인물을 부인하는 비극적 정서를 읽다.

③ 종민은 이과장에게서 사라진 유골과 합동위령제와 조복순 녀긋의 희생자 신원이 밝혀짐을 듣다.

8.

만우는 조복순 만신의 위령굿판을 찾아 망자와 생자 형제의 대화로 뿌듯한 기분을 느끼다.

9.

① 종민은 조복순 굿을 보며 무긋의 미덕과 신앙적 믿음의 증거를 만나다.

② 종민은 굿판 마지막에 금옥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전율을 느끼고, 동생 노인의 뒤 사연을 듣다.

10.

① 종민은 남행길 햇불 행렬로 급해진 이과장에게서 저항적인 섬 심방들을 만나 달라는 요청을 듣다.

② 종민은 이과장에게서 유골의 행방과 소재가 밝혀지면 굿없이 매장을 서두를 거라는 말을 듣다.

11.

① 요선은 조복순 모녀로부터 섬을 나가라고 요청받았으나 금옥을 떠올리며 거절하다.

② 요선은 고종민에게 합동 위령제 유골의 연고자 소식을 듣고 굿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다.

12.

① 종민은 이 과장에게 참극 현장의 생존자에 대해 들으며 증언의 진위 여부를 수수께끼로 여기다.

② 종민은 제증일보 문정국의 기사로 권력의 폭력적 징후를 읽은 후, 편집국장인 송일 씨를 만나 중용적이며 초월적인 면을 확인하다.

③ 종민은 송일 씨에게 문기자의 가족사와 새 생존자와 지팡이 행렬을 들었지만 말뜻을 모르다.

13.

① 금옥은 남선리 조 만신의 녀긋 마당 이후 산신령기를 안고 살다.

② 만우는 추심방네의 금옥의 내림 신긋을 조상명두로 치르자는 성화에 불안함을 느끼다.

③ 만우는 요선에게 금옥의 신긋을 치러줄는지 추궁하자 요선이 거꾸로 만우에게 되묻는다.

14.

① 이 과장은 부재중인 주재관을 대신해 급할 때마다 대리서명을 해 오다.

② 이 과장은 갑작스러운 ‘역사 씻기기 사업 중단의 건’ 대리서명에 혼란스럽지만 수행 계획을 짜다.

③ 이 과장은 고종민과 정요선에게 한라산 유골 합동 위령제를 4월 30일까지 끝내라고 위협하다.

15.

유정남네는 굿판 준비를 서두르고, 고종민, 정요선, 조복순 일행은 산행 현장 초혼 제의를 하다.

16.

① 종민은 이 과장의 청죽회 중심 행사 계획을 눈치 채지 못하다.

② 종민은 이 과장이 예상한 일인 정채 모를 젊은이들의 유골 탈취 소동이 적중하는 것을 보다.

17.

유정남이 위령긋을 하고 사람들은 굿청 출판에 어울리다.

18.

① 요선은 금옥에게 신긋을 구경하고 떠나라는 전화를 받지만 이과장의 재촉을 따르다.

② 요선은 제주를 떠나며 금옥의 앞길을 불안해하고 축원하다.

③ 요선은 정남에게 출생의 비밀을 듣고 소록도에서 혼백을 돌보자는 말에 승낙하다.

에필로그 : 사람들은 무너지고 사라진 아기장수와 용마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으나, 구세의 영웅이야기를 기억하고,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다.

『신화를 삼킨 섬』은 아기장수 이야기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배치되어 있다.¹⁹⁾ 날개를 달고 태어난 비범한 아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숨겨지고 배제된다. 급기야 백일을 채우지 못하고 발각되어 죽음에 이른다. 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탄생’, ‘갈등의 발생과 극복’, ‘죽음’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고²⁰⁾ 할 때, 아기장수의 이야기는 신화적 서사 과정에 해당한다. 비극적 아기장수 이야기에서 아기장수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작품 속의 ‘요선’, ‘종민’, ‘만우’, ‘금옥’의 삶과 겹쳐진다. 이들은 아기장수처럼 비범함을 타고 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 비극의 약자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부모의 세대가 권력의 폭압에 자유롭지 않았으므로²¹⁾ 종잡을 수 없는 방황과 혼돈을 거듭하는 것이 서사의 큰 과정을 이룬다.

이 소설은 모두 1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심인물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작가의 의도 및 작품의 주제에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19) 이를 우찬제는 아기장수의 패배(민중일반의 패배), 신화적 비전의 상실(자기 동일성의 상실), 절망의 실존과 관련한 역설적 풍경으로 나누고, 아기장수 이야기가 한 사회의 실제적 변화에의 열망과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의 폭력적 이데올로기 문제와 관련되는 담론이라고 보았다.(우찬제, 앞의 글, 213면)

20) 이상우, 『현대 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251면.

21) 특히 제주도 섬 출신의 인물들은 1948년 4·3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지니고 있다. 무장대의 봉화를 신호탄으로 경찰지서, 우익단체의 집과 사무실에 공격이 시작되었고, 이를 출발점으로 제주에서 해방 이후 1950년 6·25 전후로 집단적인 양민학살이 자행된다. 무장대의 호소문을 요약하자면, 우익 탄압에 항쟁,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반미 구국 투쟁으로 외세에 저항 등이다.(허영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서해문집, 2014, 74-82면)

장	1	2	3	4	5	6	7	8	9
주요 시점	요선	종민	만우	요선	종민	요선	종민	만우	종민
장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요 시점	종민	요선	종민	만우 (금육)	이과장	전지적 (요선)	종민	전지적 (종민)	요선

이상에서 볼 때 이 소설은 육지부 무속인 요선과 외지인 민속학자 종민을 주인공으로 전개되고 있다. 요선과 종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짝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곳에 참여하는 무속인이며, 다른 한 사람은 언어를 다루는 민속학자이다. 표층적으로 두 사람은 곳과 언어를 통해 제주도 섬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국가적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선은 제주도민의 쌓인 한을 풀어주는 ‘곳’을 통해, 종민은 진실의 흔적을 이야기를 통해 추적하는 언어적 탐색을 통해, 잊혀 가는 역사적 상처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선은 뒤에서 밝혀지는 것처럼 소록도 나환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감아라는 점에서(1-③), 종민은 일본인 국적이지만 귀화한 한국인 아버지를 둔 외지인이라는 점에서(5-①) 두 사람은 경계인이라는 공통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두 인물은 심층적으로는 상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결핍의 인물들이다. 그러한 경계의 인물들이므로 개인과 지역(제주도)과 국가의 운명이 피폐·고립되어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치유·애도하고자 하는 몸짓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결코 개인이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 개인의 진실마저 외면할 수는 없다는 작가적 글쓰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연장선상에 섬 무당 만우가 자리하고 있다. 만우는 제주도 섬 무당인 추심방의 아들이지만 말더듬이로 설정되어 있다.

아버지 추심방은 대다수의 제주도 섬사람처럼 동생을 잃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3-②) 그 때문에 특히 이름 없이 죽어간 녀를 위로해 주려고 한다. 만우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받아서 섬 무당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이지만 말더듬이이다.²²⁾ 아버지는 정작 자식에게 심방 노릇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식은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눈치를 본다.(3-②) 만우의 말더듬은 무당의 운명을 수행할 수도, 그렇다고 역행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다. 만우는 섬을 나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나가지 못하고 무당이 되고 마는 금옥과 운명의 동궐에 놓인다. 금옥은 끝없이 제주도 섬의 탈출을 시도하여 무당으로서의 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1-②, 4-③)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6-①) 만우도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숙명적 한계를 몸의 언어인 말더듬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만우와 금옥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요선, 종민, 만우, 금옥과 대척되는 자리에 이 과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과장은 신군부 정권인 큰당집과 제주도의 작은당집 사이를 매개하는 인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측면에서 실세를 가지고 있는 행정 요원이다. 그런데 이 과장은 행정, 명령, 위협, 재촉 등으로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면서도 정권의 맨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면, 부재중인 주재관을 대신하여 대리서명을 하는 꼭두각시에 해당한다. 이 과장이야말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 사이에서 뚜렷한 선이 지워져 금 밖의 인물인지 금 안의 인물인지 알 수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스스로 혼란스러워하

22) 용두 마을 추씨네 조모는 두 아들에게 무업을 내림하려고 하다.- 1948년 봄, 무업을 피해 아우가 산으로 올라가 사라지다.- 12월 하순 야음을 타 아우가 찾아와서 붙잡혀 죽다.-아우에 대한 속죄의 뜻에서 추심방은 무주고혼들을 씻겨오다.- 추심방은 모든 업장을 저승까지 혼자서 지고 가 심방노릇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69-77면)

지만 실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과정 또한 주인공들과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서사 분석을 통해 인물들의 행위를 주요 서술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중심인물/각 장	서사 과정의 주요 서술어		
요선(1, 4, 6, 11, 15, 18)	(제주도)들어오다	기대하다 찾아가다 만나다 듣다	(제주도)나가다
종민(2, 5, 7, 9, 10, 12, 16, 17)	의구심을 가지다 수수께끼로 여기다	냉소하다 듣다 기다리다 지연시키다	섬에 남다 모르다
만우(3, 8, 13)	불편하다 불안하다 화가 나다 찝찝하다		
이 과정(14)	권유하다 명령하다 대리서명하다 수행하다 위협하다		

서사 구조의 거시적 틀을 살펴보면 정요선이 섬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조우하며, 마지막으로 섬을 떠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정요선은 제주도에 들어갔을 때 제주도민들의 역사적 애환 및 자신의 출생비밀을 모르고 있다가 제주도를 나오면서 알게 된다. 섬을 들고 나면서 국가와 지역과 개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삶의 수수께끼에 한 발자국 접근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간의 이동과 함께 ‘듣다’라는 반복되는 서술어는 주인공들의 세계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람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숨어 있는 사연들이 드러나게 되며,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기인한 개인의 상처가 은폐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정요선이 들어온 섬은 ‘곳’의 상징적 공간이고, ‘곳’은 제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의는 생의 갈등을 해소하여 인간다운 삶을 이

루려는 욕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²³⁾ 이때 ‘굿’을 통해 제주도라는 섬은 고립과 상처의 공간에서 연대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제주도가 소록도로 자리바꿈하였을 뿐 여전히 모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요선은 회귀의 서사 안에서 불투명한 인생의 굴레를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정요선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남아 있는 민속학자 고종민, 추심방의 아들 말더듬이 만우, 무당의 운명을 끝내 받아들여야 하는 금옥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총족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결핍의 인물들이다. 특히 고종민은 작가의 대리인으로서의 충실한 관찰자이자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만 끝내 말뜻을 제대로 모르며(12-③), 현상을 눈치 못하는 채로(16-①) 제주도에 남겨진다. 따라서 고종민의 서사적 행로를 따라간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던 바가 명쾌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의구심은 수수께끼로 남겨진다. 이처럼 작품의 말미에서 무엇인가 산뜻한 결말을 기대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작가는 열린 결말을 지향한다. 수수께끼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마치 비극적 현실을 견디는 힘으로 아기장수와 용마가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들처럼.

이러한 회귀의 서사는 섬을 들고 나는 요선들이 계절의 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운명을 제자리에서 지난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갈등과 대립의 현실 세계는 혹독하지만 인간은 화해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인공들이 ‘섬’을 중심으로 들고 나는 것은 격리, 입사, 귀환의 통과제외의 구조와 유사하다.²⁴⁾

23) 이상우, 앞의 글, 254면.

24) 프레이저, 캠벨, 래글린의 이론에 따르는 많은 비평가들은 근원 신화를 한 영웅

『신화를 삼킨 섬』은 회귀의 서사 속에서 ‘긋’이라는 제의 형식을 통해 색다른 차원을 모색하고 있다. 제의가 삶을 중단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삶을 이루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할 때,²⁵⁾ 제의는 회귀의 서사와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때 ‘역사 씻기기’ 사업은²⁶⁾ 인물들의 바깥에서 인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명분과 당위로 작용하는 주요한 에피소드이다. ‘역사 씻기기’ 사업의 일환으로 요선들이 제주도로 들어왔고, 그 일을 마무리 지었을 때 비로소 섬을 떠나게 된다. 씻김의 ‘긋’ 서사는 예송리 새해 본풀이(6), 조복순 만신위령긋²⁷⁾(8, 9), 유정남의 사전 현장 초혼 제의(15), 유정남의 위령긋(17)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나 혹은 신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신화는 통과 의식(분리, 입사, 회귀)과 결합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신동욱, 『신화 비평론 서설』,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32-33면.

25) 이상우, 앞의 글, 254면.

26) ‘역사 씻기기’ 사업의 취지(49-50면)

은 나라 천지에 조상들의 원혼이 떠돌, 이 나라 근현대사의 시련과 고난이 중첩되는 원인은 순국 영령들의 음덕과 가호가 모자란 탓, 조상들의 원혼을 위무 진혼 이 나라 역사와 국토를 새로 씻겨야 함, 은 나라 강토에 떠도는 희생자들의 원혼을 찾아 신원

(선대 원혼들에 대한 국가적 위무와 나라의 새롭고 바른 역사, 나아가 평화와 안녕을 명분으로 내세워 군부 정권에서 이반된 민심의 혼란을 수습하고 비정상적 권력의 정통성을 마련해보자는 속셈)

‘역사 씻기기’ 사업의 경계(96면)

적당한 밝힘이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함이라, 밝힐 만한 데까지 적당히 밝혀서 다스리는 쪽의 생색을 내보이되, 부질없는 부풀림은 막아야 하는 것, 숫자가 너무 많다 보면 옛 관부의 비정함에 대한 원한이 거꾸로 오늘의 권부에게까지 미치기 쉽기 때문, ‘역사 씻기기’ 놀음도 권력에 대들지 못하게 하는 차단 벽

27) 1949년 정월 무장대의 기습으로 두 명의 전사자가 나옴-마을 어른들이 두 시신을 신고 토벌대 본부로 찾아감-홍분한 토벌대군은 열 명의 노인 중 경찰 가족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총살-이어 남선리로 들어가 남녀노소 3백 명 총살-이튿날에도 무장대 협력자로 지목하여 백 여명의 인명 희생시킴, 조복순의 해원긋판은 마을 희생자들이 아니라 참극의 빌미인 두 토벌대 혼령임(99-100면)

2) 숙명적 운명의 굴레

『신화를 삼킨 섬』의 주요 인물들은 무속인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 요선이 신어미 유정남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온 육지무당이라면, 만우와 금옥은 각각 추심방과 변심방을 아비와 어미로 둔 제주무당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당일 때, 자식은 숙명적으로 내림무당의 삶을 이어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요선, 만우, 금옥, 경화(조복순의 신 딸)는 같은 처지를 살고 있는 무당의 삶이라는 점에서 동계의 인물들이다.

심방은 오로지 자신이 모시는 당주 신령과 마을 사람들(당골)을 위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바치며 살아갈 뿐 자신을 위해 사는 일이 없었다.

어려운 사람들의 액풀이를 위한 굿판 자리를 제외하곤 늘 주위 사람들의 하대와 천시 속에 죄인처럼 기가 죽어 눈치를 살피고 살아야 했다.

내림 신국은 이를테면 지금까지의 사람의 길을 버리고 그렇듯 새 숙명의 삶을 받아들이는 의식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지금까지의 삶의 죽음이자 무당으로 새로 태어남이라 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이 신에게 바쳐지는 가엾은 제물의 길이었다.
(286-287면)

그러므로 금옥이 그토록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요선도 신어미 유정남을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금옥이 제주도를 탈출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산되고, 요선도 제주도를 나오게 되지만 또 다른 고립의 섬인 소록도로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작중 인물들의 운명은 역사적으로 폭력과 상처로 얼룩진

섬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다.

“이 섬 역사에서 보면 어느 쪽 권력권에 서려 했든지 결국은 이 섬 전체가 국가권력의 한 희생단위로 처분되곤 했지요. 고 형도 아시겠지만 이 섬 사람들, 이번 역사 씻기기 사업의 희생자 신고 사업에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양지나 음지, 이를테면 한얼회나 청죽회 어느 쪽 영향권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제3의 도민층인 셈이지요. (…) 어찌 보면 그게 진짜 이 섬의 역사적 운명을 함께 살아온 한 생존 단위의 공동 운명체 백성들인지도 모르지요. (…)” (270면)

계엄정국의 불안감 속에서²⁸⁾ 제주도는 한반도의 위기를 오롯하게 대변하고 있는 섬이므로, 제주도는 한반도를 상징하면서 비유하는 섬이다. 특히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개의치 않는 비극적 역사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한 국가나 역사의 이념은, 실은 그 권력과 이념의 상술은 항상 내일への 꿈을 내세워 오늘의 땀과 희생을 요구하고, 그 꿈과 희생의 노래 목록 속에 오늘 자신의 성취를 이뤄가지만, 오늘의 자리가 없는 인민의 꿈은 언제까지나 그 성취가 내일로 내일로 다시 연기되어가는 불가항력 같은 마술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없지요. 국가의 본질이 그렇고 이 섬의 운명이 그렇진대 어느 누가 친체제 반체제 혹은 친정권 반정권 어느 쪽

28) 한 지도적 재야 인사가 쌀쌀한 들바람기를 무릅쓰고 서울에서부터 남쪽 항구도시 M시를 향해 측근 몇 사람과 함께 먼 행군길을 나섰다. 소식이었다. …그것도 또 한 번 같은 사고를 부르지 않겠다는 구실로 차량 이동을 물리친 채 굳이 불편한 도보행을 감행하고 나섰다는 거였다. 다만 그 밤낮으로 이어지는 도보행을 밝히기 위해 큰 햇불 하나만을 앞세운 채. …그의 진짜 목적은 그 노중의 동행자의 힘을 모으려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다시 시들어가는 서울의 봄 기운에 불씨를 불어 일으켜 이 나라 민주화의 도정을 힘 있게 밝혀려는 것이 분명했다. (167-168면)

에 서느냐는 결국 별 뜻이 없는 거겠지요.”(271면)

이상에서 볼 때, 숙명적인 운명의 굴레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와 자식의 대립과 계승이라는 측면, 둘째, 섬(제주도, 소록도)과 육지(한반도)의 대립과 연계라는 측면, 셋째, 개인과 국가의 대립과 공존이라는 측면이 그것이다. 이것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그려진 아기장수의 비극적 신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벗어나려야 벗어날 수 없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결국 처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과 한계를 그리고자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화를 삼킨 섬』이라는 제목은 글자 그대로 ‘신화’를 ‘삼킨’ ‘섬’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화’의 자리에 인간의 욕망, 진실이 대신하고, ‘삼키다’의 자리에 ‘삼추다’, ‘지우다’가 대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화를 삼킨 섬』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개인의 욕망이나 진실이 있다고 해서 걸어로 드러낼 수 없다. 우리는 진실이 오히려 감춰지거나 지워지거나 외면당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더군다나 철저하게 외부와 고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비극적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욕망의 지연

1) ‘긋’제의의 의미

작가 이청준은 『신화를 삼킨 섬』을 ‘무당소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²⁹⁾ 그런 만큼 제주도 무속신화 속의 ‘긋’은³⁰⁾ 『신화를 삼킨

29) 이윤옥,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섬』의 핵심적인 열쇠어에 해당한다. 특히 작가의 글쓰기가 여러 측면에서 ‘굿’과 동질적인 계열을 이루고 있다.

“그 숙명처럼 어쩔 수 없는 제 삶의 아픔 끌어안기와 그 아픔 함께 아파하기, 혹은 대신 아파해주기”³¹⁾

더욱이 그 무굿의 주된 기능이 원혼을 씻김[解冤]에 있음을 상기할 때(씻김굿은 대개 사자의 죽음과 저승행의 재연을 통해 사자의 원망을 위무하고 생자의 슬픔을 해소한다), 그간의 내 소절집 또한 어느 면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채우고 위무하는 씻김과 치유의 한 과정이기도 했음에라.³²⁾

위의 서술에 의하면, ‘굿’ 제의를³³⁾ 치르는 무당과 글쓰기를 업으로 삼는 작가는³⁴⁾ 몇 가지의 공통분모를 지닌다. 첫째, 제 삶이나

2011, 428면.

- 30) 제주도의 무속의례는 ‘굿’과 ‘비뉘’로 나누어지고, ‘굿’은 ‘큰굿’과 ‘작은 굿’으로 나누어지며 ‘비뉘’는 간단한 기원의례이다. 큰굿은 종합청신의례로서 모든 굿이 중합된 것이며, 작은 굿은 어느 한 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굿이므로 제주도 굿의 진모를 보려면 3-4일 이상 소요되는 큰 굿을 보는 것이 좋다.(현웅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1면)
- 31) 이청준, 『아픔 속에 숙성된 우리 정서의 미덕』, 『흰옷』, 열림원, 1994, 269면.
- 32) 이청준,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 왔나』, 『신화의 시대』, 물레, 2008, 313-314면.
- 33) 벨은 제의의 성격에 따라 통과제의, 주기제의, 교환과 친교의 제의, 재앙제의, 단식 및 축제, 정치적 제의로 6가지 분류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신화를 삼킨 섬』에 나오는 ‘굿’제의는 교환과 친교의 제의(초월자,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제의), 재앙제의(사회적 재앙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제의), 단식 및 축제(공동체의 갈등을 풀기 위한 제의), 정치적 제의(국가나 공동체 차원에서 정치적 행사에서 주로 행해지는 제의)와 관련되어 있다.(Catherine Bell, *Ritual: Perspectives and Dimension*, Oxford Univ. Press, 1997,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주), 2005, 159-160면, 재인용)
- 34) 무당과 작가는 신경증 환자와 같이 ‘환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예술가는 신경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환상’에 매혹 당한다. 환상에 매혹 당한 인간

타인의 삶의 아픔을 끌어안아서 함께 아파해야 한다. 둘째,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의 억울하고 한스러운 상처와 고통을 소환하여 망각으로부터 지켜내고 기억을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 셋째, 원망을 달래고 슬픔을 해소하여 씻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비극적인 아기장수 이야기와 더불어 “억눌림과 쫓김의 제주 섬 역사가 곧 바다 건너 전라도의 역사나 이 나라 전체의 역사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데(160면) 특히 제주 섬 사람들은 옛날부터 4·3사건,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폐죽음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명분 높음에 피를 보아왔다. 따라서 섬 사람들은 육지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이며 배타적이다. 이러한 상처투성이인 섬 사람들의 좌절과 환멸로 인해, 육지 무당들은 ‘역사 씻기기 사업’의 일환으로 섬에 들어가서도 제대로 된 곳을 진척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점철된 좌익과 우익 사이에서,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 희생자들의 한 ‘맺힌’ 상처를 ‘풀리’게 하기 위한 과정은 그것을 ‘씻기’는 ‘굿’을 매개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굿’ 제의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공권력으로 인해 해체된 가족의 죽음과 이별을 위로하고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때 ‘굿’ 제의는 소통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낸다. 망자와 생자가 동시에 ‘씻기’는 작업을 통해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다.

들이 바로 ‘내향적인 인간들’이다. 즉 자신 내부의 ‘허구’속으로 침잠하는 인간들이 신경증환자이고 예술가들이다. 이 지점까지는 예술가들 역시 신경증 환자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허구에 매혹 당한 내향적 인간이란 신경증 직전의 인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김형중, 『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39면)
그러나 예술가가 환자와 다른 점은 개인적 환상의 보편화 작업, 성적 환상의 탈성화 작업, 망상적 환상의 예술적 가공 작업, 무의식적 상상의 표현을 통한 기쁨 등이다. (위의 책, 42-43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무당이 수행하는 ‘굿’에서 우리는 제의적 특성뿐만 아니라 예술적 특성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곳’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 무격의 춤과 노래에 실려 열두 청대 흰 명부길을 내려 들어온 사자의 보이지 않는 혼백이 심방의 입을 빌려 이승의 남은 가족들과 하나하나 생전의 원정과 설움을 나누고 서로 애절한 기원 속에 마지막 먼 저승길을 떠나보내고 떠나가는 제의의 절정에선 이방인 격인 종민도 덩달아 가족이나 마을 구경꾼들 한가지로 가슴 뜨거운 한숨기를 참아 삼킬 수가 없었다. …심방은 대개 제 본정신을 지닌 중간자적 사제로서 생자나 망자 편에서 신령의 뜻을 청해 빌고, 그 신령의 뜻을 망자나 유족에게 대신 전할 뿐이었다. 그러니 그 신령들과 심방과 제주들은 여타의 고등 종교처럼 수직적 종속 관계로서가 아니라 수평적 시혜 관계 속에 함께 주고받으며 어울리는 식이었다. (용두리 추심방의 동네 용왕맞이 낚곳, 54-56면)

이러한 ‘곳’이 소설의 일부를 이루거나 주된 재료가 된다는 것은 소설장르의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³⁵⁾ 그러나 ‘곳’이라는 제의를 언어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틈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닌 낯선 용어들의 사용은 친숙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시·청각적인 종합 예술 차원의 제의를 활자로 국한한다는 것도 ‘곳’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령과 혼령,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는 무당의 힘으로 서로 만나고, 생사 간의 일을 서로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도무지 허황스런 괴담 같기만 하였다.”(211-212면)에서처럼 ‘곳’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초월하는 지평에 ‘허황스런 괴

35) “소설이 소설 자체의 목적을 위해 묘사, 서술, 드라마, 에세이, 주석, 독백, 담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설이 우화, 이야기, 교훈담, 목가, 연대기, 옛날이야기, 서사시가 되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고 그것도 차례로이거나 동시에이거나 소설 마음대로인 것이다. …소설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작품을 내포할 수도 있고 단지 ‘시적’일 수도 있다.”(M.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70면)

담'으로 자리한다.

그럼에도 『신화를 삼킨 섬』의 서사에서 '굿'이라는 제의는 시공을 초월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무하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키는 매개적 역할과 은폐되는 국가적 폭력으로부터 진실을 드러내려는 연행의 의미를 갖는다. 역사의 비극적 장면들은 특별한 장치에 의하지 않고는 기억되지 않고 망각된다. 상처로 얼룩진 비극적 정서를 소환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로 '굿'과 '언어'가 있다.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특별한 '씻김'이 필요하다. 망각과 기억 사이에, 맺히는 것과 풀리는 것 사이에 굿과 언어가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다.

2) 유예되는 진실

“기억이 말살당한 데는 역사가 없다. 역사가 없는 데는 인간의 존재가 없다”고 한 제주도 출신 재일동포 작가 김석범의 말은³⁶⁾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인간의 존재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살당한 기억을 복원시켜야 한다. 무수한 소문들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진실의 실체를 발견해야 하는 것은 대학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⁷⁾ 특히 『신화를 삼킨 섬』 시간 설정은 제주도에서의 1947년 4·3 사건을 회고하며 이러한 비극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5·18 항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사의 집단학살은³⁸⁾ 반

36) 허영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서해문집, 2014, 225면.

37) “주권 국가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인민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거나 관여할 권리를 주권의 핵심 요소로서 주장한다. 그리고 유엔은 사실상 이 권리를 옹호한다.”(Leo Kuper, *Genocide: Its Political Use in the Twentieth Centur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161면.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43면, 재인용.

복적으로 계속되리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제주도'라는 공간 설정은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의 공간인 소록도와 겹치면서 폐쇄적이며 단절된 '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제주도는 유배의 공간, 격리의 공간, 폐쇄의 공간이기에 권력의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그만큼 학살과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 소록도가 그랬던 것처럼 섬에서의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프로로그의 아기장수 설화, 김통정과 김방경의 설화(7-②)는 제주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비극적인 설화의 일례이다. 제주도민은 김통정과 김방경이 외래 권력자이며, 가짜 구세주이기에 관심이 없다. '역사 씻기기' 사업에서 청죽회와 한얼회의 그 어느 쪽에도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³⁹⁾ 지배 권력자의 전횡과

38) 프로이트는 문명이 진보할 때에 죄의식은 더욱 강화되고 항상 증대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증대되는 전쟁의 주기, 도처에서 일어나는 학살, 유대인 배격주의, 민족 근절 책동, 맹목적 신앙, 망상의 강화, 증대하는 부와 지식 속의 고통과 병과 비참함 등이 바로 문명의 불만이다. (마르쿠제, 김인환역, 『에로스 와 문명』, 나남, 1989, 89면)

39) <청죽회의 입장>

사람들은 으레껏 그 유골이 토벌대의 화염방사기나 기관단총쫄음으로 한자리 때죽음을 당한 무장대 희생자들의 것으로 단정하고, 한편으론 그 무고한 희생자 수 불리기와 장렬한 저항 정신 드러내기에, 다른 한편으론 그 죽음의 역올한 포한과 토벌대의 잔학성 부각에 은근히 다시 열을 올리기 시작 (127-128면)

<한얼회의 입장>

유골들이 동굴 외부로부터 누구의 공격을 받아 살해된 희생자들의 것이 아니라, 모종의 자제 분란이나 합의에 의해 강제 혹은 동반 자살을 감행한 자들의 것일 가능성, 유골들은 좌익 무장대에게 희생당한 일반 민간인이거나 우익 쪽 희생자들일 개연성(129-131면)

<섬 사람들의 입장>

아무도 유골의 죽음을 아는 체하지 않음. 이제 더 이상 이승의 삶을 구원할 저 아기 장수의 꿈마저도 믿을 수가 없음. 어느 한쪽의 영웅이나 구원자보다 이 섬 사람들의 삶의 운명을 함께하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해원시켜 보내고자 함. 이름 없는 그들의 혼백을 거두고 그 유혼을 씻길 일 역시 이름 없는 이 섬 사람들과 토박이 심방들(132면)

폭력 앞에서 무력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의 숨은 상처는 작품 속 제주일보의 문정국 기자의 담론을(12-②) 통해서⁴⁰⁾ 우회적으로 표출된다.

-문정국의 여행기사 : 문학담론 혹은 망명담론

지금 이 가파르고 엄혹한 현실 앞에 우리는 왜 망명과 같은 전면적 거부와 저항을 보여주는 작가나 지식인을 한 사람도 가질 수 없는가.(261면)

-문정국의 주간 연속물 기사 : ‘국가와 인신공회’

정치의 예술화(충동, 황홀)가 홀로코스트(대학살)를 부르는 생물학적 이유이다. 정염에 휩싸인 국가는 불을 지필 에너지를 인민의 이드로밖에 달리 얻을 곳이 없다. 저 나치즘의 유대인 학살, 군국 일본의 가미카제 광란이 바로 그런 끔찍스런 본보기 아닌가.(264면)

아울러, 작가는 4·3 사건 때 억울하게 죽은 아우에 대한 속죄로 무주고혼만을 씻겨오고 있는 만우 아버지 추심방이나 소록도의 혼백과 제주도의 수많은 혼들을 위해 씻김굿을 하러 들어온 유정남에 의해서 현실적 상처를 무속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그것은 민속학자 고종민의 시선에 의해 “죽은 사람은 죽어서나마 이승의 한을 풀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그 가슴 아픈 망자의 짐을 벗고 다시 제 고난스런 삶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재이별의 자리. 그 서럽고도 아름다운 영별 의식, 그것이 이 한국의 굿이구나.(213면)”처럼 서술된다. 고종민의 시선이 곧 작가의 시선이라면, 이청준은 반복되는 역

40) ‘국가와 인신공회’ 글 안에 송일씨의 『국가와 시의 충동』에 대한 인용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시의 빛이 솟아나는 시어의 궁극적 경계를 탐색하는 가운데에 국가, 교회, 철학, 역사 영역의 언어들을 광범하고 세심하고 검토한 끝에, 그 언어의 주어(국가)는 자신과 대상 사물(인민)들을 욕망하고 명명(의미부여, 규정)하며 유지, 지배, 확장해가는 권력적 ‘술어의 세계’ 가운데에 자리함을 밝힌다.”(263면)

사적 상처에 대한 치유를 ‘굿’이라는 제의에서 찾고 있다.

작가나 기자는 글쓰기를 통하여, 화가는 그림을 통하여, 무당은 굿을 통하여 진실을 증명하며 증언할 수밖에 없다. 죽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넋을 위로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온전한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아서는 공권력의 폭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죽어서는 그 한스러운 삶을 풀지 못한 사람들에게 ‘굿’제이나 글쓰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그렇다고 해서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작가적 메시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서사분석을 통해 『신화를 삼킨 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① 역사적으로 공권력에 짓밟힌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반복되어 되풀이되고 있다.
- ②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은 잊히고 묻히고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의 울분과 원한은 쌓이고 있다.
- ③ 위무의 글쓰기나 해원의 ‘굿’ 제의가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해결해주거나 영속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며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모순을 뿌리 뽑지는 못한다.
- ④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적 흐름으로 볼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불완전한 인간들의 고뇌와 방황, 그들의 아몰지 않은 상처와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 ⑤ 글쓰기나 ‘굿’이 순간적인 것을 포착하고 붙잡는다는 것의 의미를 지닌 채, 진실은 계속 유예되고 있는 것이다.
- ⑥ 그러나 망각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일은 진실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이며, 그들을 복원시켜서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무하는 일이며, 더 이상 비극적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일이다.

글쓰기나 ‘굿’이 순간적인 것을 포착하는 것은 현현(顯現, epiphany)의 순간이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이해와 공감의 장이다. 글쓰기나

‘긱’은 유비되며 그 중심적 의미가 진실과 거짓을 매개하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역사의 비극성을 드러내면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다. 진실이 유예된다고 해서 주인공의 탐색이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청준은 이러한 한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성에 이르게 한다. 세상의 비극적 삶을 넘어서면서 어떤 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들은 여전히 기록될 것이고 ‘긱’은 재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대하는 이유이다.

4. 나오며

이상에서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서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출할 수 있었다. 첫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둘러싸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는 『신화를 삼킨 섬』의 비극적인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적 장치이다. 『신화를 삼킨 섬』은 비극적 설화와 마찬가지로, 작중 인물들이 아무도 태생적 운명의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극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죽음’의 운명이 그러한 것처럼 주인공의 좌절과 패배는 예정되어 있다. 둘째, 육지부 무당 요선을 중심으로 민속학자 종민이 심문하고 탐색하며, 관찰하고 추적하는 구조를 보이며, 제주도를 들고 나면서 완벽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회귀의 구조를 보인다. 그런데 이 회귀의 서사는 ‘긱’ 제의와 맞물리는데 제주도라는 섬은 ‘긱’ 제의를 통해 고립과 상처의 공간에서 연대와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때 주인공들이 ‘섬’을 중심으로 들고 나는 것은 격리, 입사, 귀환의 통과제의의 구조와 유사하다. 셋째, 개인적이고 내밀한 ‘한’의 정서는 집단적이며 사회적인 ‘한’의 정서로 확대되면서, 맺히고 쌓인 것들을 풀 수 있는 문학적 장치로 작가는 ‘무속신

화'의 '긋' 제의를 수용하여 소설과 함께 놓음으로써 소설의 양식을 확장하고 있다. 넷째, '긋'은 맺힌 한을 씻겨서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작가의 '글쓰기' 양식과 동궤를 이루며, 작가적 글쓰기나 풀이의 '긋'은 개인이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 묻어 두었던 사연이나 공권력이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의 흔적을 들추어내는 증언의 역할과 의의가 있다. 이것은 구전과 기록을 통한 다양한 이야기들의 힘이며,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복원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신화를 삼킨 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상실과 고통을 얼마나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문명의 발달은 폭력적인 광기로 치달아 희생양과 속죄양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다. 제의와 증언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현실적 긴장 관계나 대립 관계가 완화되고 그것을 초극하는 유토피아로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긋'제이가 종합적인 예술에 해당한다고 할 때, 작가가 '긋'의 울동과 몸짓과 구전 언어를 작품 속에서 소설의 문자언어로 정확하게 옮겨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도구적 언어와 끊임없이 불일치하면서 생기는 히스테리를 상기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은 이전 작품의 한계를 포괄하면서 초월하고 있다. 특히 글쓰기나 '긋'이 순간적인 것을 포착하는 것은 현현(顯現, epiphany)의 순간이며,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이해와 공감의 장이다. 글쓰기나 '긋'은 유비되며 그 중심적 의미가 진실과 거짓을 매개하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역사의 비극성을 드러내면서 기억하게 하는 장치이다. 진실이 유예된다고 해서 주인공의 탐색이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청준은 이러한 한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각성에 이르게 한다. 독자들은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 시선을 잃지 않



으면서, 작품을 통해 매개하고 증언하려고 하는 작가의 치열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신화를 삼킨 섬』의 이야기는 인간들이 문명을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한,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서도 반복되고 소환될 것이므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작가의 혜안이 망라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청준,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2. 논문

- 고인환,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탈식민성 연구」, 『한국언어문화』 29집, 2006, 109-130면.
- 김경아, 「이청준 소설의 윤리학」, 『현대문학이론연구』, 2013, 31-48면.
- 연남경, 「신화의 현재적 의미-최인훈, 이청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349-369면.
- 연남경, 「집단학살의 기억과 서사적 대응」, 『현대소설연구』 46집, 2011, 281-305면.
- 오생근, 「이청준의 마지막 소설들과 신화」,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2011, 가을호, 257-270면.
-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신화적 상상력과 공간-〈신화의 시대〉와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263-297면.
- 우찬제, 「한의 역설」, 『서편제』, 열림원, 1998, 208면.
- 우찬제, 「풀이의 황홀경과 다시 태어나는 녀」, 『신화를 삼킨 섬』 2, 열림원, 2003, 208-225면.
- 이경욱, 「문학 텍스트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론」,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402-425면.
-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섬의 속성과 의미 고찰」, 『반교어문연구』제 40집, 2015, 533-565면.
- 이성준, 「이청준 소설에 나타나는 제주·제주민 의식」, 『우리어문연구』 53집, 2015, 117-151면.
- 이소연,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에 나타난 신화적 리얼리즘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74, 2016, 225-253면.
- 이윤옥, 「텍스트의 변모와 상호 관계」,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428면.

- 이재복, 『역사적 정신태를 넘어 뉘트로-이청준의 <신화의 시대>에 부쳐』, 『신화의 시대』, 물레, 2008, 321-346면.
- 이청준, 『나는 왜, 어떻게 소설을 써 왔나』, 『신화의 시대』, 물레, 2008, 313-314면.
- 이청준, 『아름 속에 숙성된 우리 정서의 미덕』, 『흰옷』, 열림원, 1994, 265-266면.
- 이현석,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역사의 서사화 방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47집, 2007, 437-463면.
- 전홍남, 『원망의 좌절과 해원의 방식』, 『영주어문』 8집, 영주어문학회, 2004, 97-121면.
- 정과리, 『정치도 넘고 신화도 넘어, 또한 탐돌이도 넘어서』, 『신화를 삼킨 섬』, 문학과지성사, 2011, 392-427면.
- 정홍섭, 『이야기로 풀어낸 역사와 신화화된 이야기-황석영의 <손님>과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 『실천문학』 71집, 2003, 312-332면.
-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233-250면.
- 홍용기, 『사유와 실천의 윤리학』, 『비평문학』 36, 한국비평문학회, 2010, 365-384면.

3. 단행본

- 김치수 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기린원, 1989. 81-138면.
- 김형중, 『소설과 정신분석』, 푸른사상, 2003, 39면.
- 신동욱 외, 『신화와 원형』, 고려원, 1992, 32-33면.
- 오세정, 『한국 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 한국학술정보(주), 2005, 159-160면.
- 이상우, 『현대 소설의 원형적 연구』, 집문당, 1985, 251면.
- 최현무, 『한국문학과 기호학』, 문학과 비평사, 1988, 234면.
- 허영선,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서해문집, 2014, 74-82면.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11면.
-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새물결, 2013, 59면.
- 마르쿠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 1989, 89면.

- M. 로베르, 김치수·이윤옥 역,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 문학과지성사, 1999, 70면.
- S. 프로이트, 김석희 역,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1997, 47면.
- 츠베탕 토도로프, 곽광수 역, 『구조시학』, 문학과 지성사, 1977, 96면, 103-104면.



<Abstract>

The Narrative Structure of Regression in Lee Cheongjun's *Island Embracing Mythology*

Ma, Hee-Jeong

In *Island Embracing Mythology*, Centering on Yosun, Jongmin examines, explores, observes and pursues. And it has a regression structure so that its narrative goes into and comes out and goes back. The narrative of regression is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rite of passage of separations, transitions, and returns. It follows an open structure that transcends dichotomy. The vague future waits for the characters to make them repeat an ambiguous life in the narrative of regression. The fate of them remains unchanged and trapped in the tragic and limited situations. The bondage of fate is tragic. Overlapped with the myth of the baby of great strength, the writer tries to describe the fatalistic limit of human beings who are doomed to die in the logic of the strong and the weak.

“The Gut”(a kind of exorcism for mourning) is to resolve deep sorrow of the dead and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writing style of Lee, Cheongjun. Writing or “gut” is a testament to uncover the truth that governmental power tries to conceal or the stories that individuals try to hide by feelings of guilt. As ‘gut’ transcends rational and scientific things, it is hard for common people to understand it. However, ‘gut’ comforts the hurt of the wounded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Also, ‘Gut’ connects life and death and exposes the truth of national violence. The author embraces the ‘Gut’ of ‘shamanic myths’ and extends the form of the novel.

Messages of the novel by nar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Historically, the liv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re repeated. With the passing times, resentment and grudge has been piled up onto the lives of countless victims. Writing or ‘gut’ plays a temporary role of consolation but they do not solve the problems completely. Therefore, the anguish of the imperfect humans and their pain and suffering will be continued. writing or ‘gut’ catches something temporary but fails to uncover the truth. But remembering and testifying are related to discovering the truth, restoring them to heal or treat their wounds, and making them alert not to repeat their tragic lives.

There is a limit for the author to describe accurately the ‘gut’ gestures and oral language with the written words. Nevertheless, *Island Embracing Mythology* embraces and transcends the limit of previous works. Readers can catch the author's earnest and persistent determination to explore and grasp the inner side of life constantly. Furthermore, they can recognize the author's passionate viewpoint who tries to communicate and testify through his works with the solidarity and compassion of the imperfect and vulnerable human beings.

Key words: structure of regression, open structure, the bondage of fate, the significance of testimony, mediating role, comfort writing, ‘gut’ of solution

투 고 일 : 2017년 11월 10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0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